

04 고등학교 고르기

같은 성적이면 어디로

일반고·자사고·특목고를 나란히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먼저 사실부터	2
02 무엇이 갈리나	3
03 어떻게 고르나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다섯 갈래를 **한 표에** — 일반고를 포함해서
- ◆ 세 가지가 서로 **맞바뀌집니다** — 내신 · 교육과정 · 돈
- ◆ 5등급제가 이 저울을 **웁긴 자리**와 단정하면 안 되는 까닭
- ◆ 네 가지 **시나리오** — 같은 성적이라도 다른 답이 나오는 것이 정상

01 · 먼저 사실부터

고를 수 있는 것은 다섯입니다

「성적은 되는데 어디를 보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중3 가을에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학교 갈래를 하나씩 설명하는 자료는 많은데, 「같은 아이를 놓고 건주면 어떻게 되는가」를 말해 주는 자료는 적습니다. 이 편은 그것만 다룹니다.

고를 수 있는 것은 다섯입니다. 앞서 각각을 자세히 다뤘으니 여기서는 **건주기만** 하겠습니다.

갈래	학교	지원 군	무엇이 세다
영재학교	8	영재	수학·과학 연구
과학고	22	전기	수학·과학 심화
외고·국제고	36	후기	언어·국제
자사고	33	후기	학교가 짠 교육과정
일반고	—	후기	내신과 선택 폭

일반고를 표에 넣은 것이 이 자료의 뜻입니다. 앞의 넷만 놓고 고르는 자료가 많은데, 대부분의 학생에게 실제 선택지는 「일반고냐 아니냐」입니다.

출처: 각 학교 2027학년도 입학전형 요강(특목고 66교)·2026학년도 요강(자사고 33교). 학교 수는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02 · 무엇이 갈리나

세 가지가 서로 맞바뀌집니다

같은 아이를 놓고 보면 셋이 서로 맞바뀌집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줍니다.

	특목고·자사고	일반고
내신	잘하는 학생이 모여 등급이 낮아집니다	상대적으로 받기 수월합니다
교육과정	일반고에 없는 과목이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줄 수 있습니다
또래	같은 관심의 학생이 모입니다	다양합니다
돈	자사고는 연 850~1356만 원	연 71만 원

맨 윗줄과 둘째 줄이 정면으로 부딪칩니다. 좋은 교육과정을 얻으면 등급을 내주고, 등급을 얻으면 과목 폭을 내줍니다.

5등급제가 이 저울을 조금 옮겼습니다

2025년 고1부터 내신이 5등급제입니다. 1등급이 상위 10%로 넓어졌습니다(9등급제는 4%였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학생이 모인 학교의 내신 부담이 이전보다 줄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특목고 학업중단자가 줄고 일반고에서 늘었다는 공시 추이가 있습니다.

다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앞서 다룬 대로 고2·3에서 배우는 과목이 아직 한 바퀴를 안 돌았고, 최종 유불리는 대학이 내신을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이 새 변수입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그 학교가 어떤 과목을 여는가가 중요해졌습니다. 특목고는 그 분야 과목이 깊고, 일반고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일반고를 고르실 때도 교육과정 편성을 보셔야 하는 까닭입니다.

출처: 각 학교 요강·공시 및 학교알리미 학업중단 현황. 학비는 2023년 결산 기준 학부모부담금 집계입니다. 해석은 저희 판단입니다.

03 · 어떻게 고르나

네 가지 시나리오

같은 성적이라도 다른 답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흔한 넷을 놓고 보겠습니다.

Q. 하나 — 수학·과학을 스스로 파고드는 아이

영재학교·과학고를 볼 만합니다. 다만 앞서 다룬 대로 둘은 다른 제도이고 원서 시기가 다섯 달 차이납니다.

확인할 것 — 지필(영재성 검사)이 강한지 면담이 강한지. 그리고 **과학고에 붙으면 후기고가 닫힙니다.**

Q. 둘 — 성적은 좋은데 진로가 아직인 아이

일반고나 자사고 쪽이 무난합니다. 특목고는 분야가 정해진 학교라 진로가 안 맞으면 3년이 갑니다.

확인할 것 — 그 학교가 선택 과목을 얼마나 여는가. 진로가 안 정해졌을수록 고를 폭이 넓은 학교가 낫습니다.

Q. 셋 — 영어가 강하고 언어를 좋아하는 아이

외고·국제고를 볼 만합니다. 다만 「영어를 잘한다」와 「언어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다릅니다.

확인할 것 — 편제표에 수학·과학이 몇 학점인지. 앞서 본 대로 **수학이 15~23학점**이라 「문과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후기 한 장**을 여기 쓰는 것입니다.

Q. 넷 — 성적이 중상위권이고 내신이 중요한 아이

일반고가 대체로 맞습니다. 대입에서 학종과 교과가 가장 큰 갈래이고 둘 다 내신을 봅니다.

확인할 것 — 그 일반고의 학년 규모와 개설 과목. 앞 편에서 다룬 대로 등급은 그 과목을 들은 사람 수에서 나옵니다.

시나리오는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학생마다 다르므로 **이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참고로만** 보십시오.

04 · 그래서 무엇을

고르는 차례와 점검표

차례	물을 것	왜 이 순서인가
1	아이가 파고드는 것 이 있는가	있으면 그 분야 학교가 열립니다
2	3년치 비용 을 감당할 수 있는가	중간에 못 내면 아이가 다칩니다
3	어느 군 을 쓸 것인가	전기에 붙으면 후기가 닫힙니다
4	그 학교의 개설 과목 이 맞는가	고교학점제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5	학생 이 다니고 싶어 하는가	3년을 보내는 것은 학생입니다

1번이 「성적」이 아닌 것을 보십시오. 성적은 쓸 수 있는 학교를 정할 뿐이고, 어디가 맞는지는 성적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학교를 정하기 전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아이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이 있는가
- ☐ **3년치 비용**을 계산해 보았는가
- ☐ 쓰려는 학교가 **어느 군**인지 아는가
- ☐ 전기에 붙으면 **후기가 닫힌다**는 것을 가족이 아는가
- ☐ 그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을 보았는가
- ☐ 내가 들을 **선택 과목**이 개설되는가
- ☐ 일반고라면 **학년 규모**를 확인했는가
- ☐ **학생**이 「여기라면 다니겠다」고 말했는가

마지막 항목이 3년을 정합니다. 부모가 정한 학교에서 버티는 3년은 어느 갈래를 골랐든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적이 되니까 특목고**」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학원은 특목고 준비로 오래 수업할 이유가 있어서 그쪽으로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특목고는 더 좋은 학교가 아니라 분야가 정해진 학교입니다. 그 분야가 아이의 것이 아니면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3년이 갑니다.** 성적으로 고르지 마시고 **아이가 무엇을 파고드는지**로 고르십시오.

05 · 자주 묻는 것

학교 갈래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특목고 가서 내신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대입에서 갈 수 있는 문이 좁아집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다만 어느 문이 좁아지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내신을 계산하는 교과 전형은 확실히 불리해집니다.

서류를 읽는 학종에서는 교육과정과 활동이 함께 읽혀 등급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자리가 생깁니다.

논술과 정시는 내신 비중이 작거나 없습니다.

그러니 특목고를 고르실 때 「어느 문으로 갈 것인가」를 함께 정해 두셔야 합니다. 교과로 갈 생각이면 특목고가 불리하고, 학종·논술·정시로 갈 생각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문을 안 정하고 학교부터 정하면 3년 내내 맞지 않는 옷을 입습니다.

Q. 일반고에 가면 손해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입 모집 인원으로 보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수시에서 학종 30,468명 · 교과 26,958명입니다. 둘 다 내신을 보는 전형이고, 수시의 대부분입니다. 내신을 받기 수월한 것이 그만큼 큰 이점입니다.

다만 일반고도 학교마다 크게 다릅니다. 앞 편에서 다룬 대로 학년 규모와 개설 과목을 보셔야 합니다. 「일반고」라는 한 낱말로 묶어 판단하지 마십시오 — 특목고 사이의 차이보다 일반고 사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알리미로 그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 편에서 다뤘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학교 갈래는 위아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성적은 쓸 수 있는 곳을 정할 뿐이고, 어디가 맞는지는 아이가 무엇을 파고드는지가 정합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공개 요강·공시 자료와 집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학교의 값과 진학 결과는 신지 않습니다. 시나리오와 판단 기준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것이며 학생마다 다릅니다. 이 자료는 특정 학교를 권하거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